

‘중심교육’ 패러다임에 맞춰 가야할 때



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SPACE21건설사업단에서 말하듯, 현재는 법규상 장애인 시설을 포함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 환경이다. 때문에 SPACE21사업이 진척될수록 우리학교의 장애학생 지원 시설을 갖춘 건물들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학교는 타대 대비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장애학생 등과의 소통에서 오는 어려움’ 역시 복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한 불편사항이다. 이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건물 시설의 미비점’ 문제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와 구성원 일반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교육적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부터 시행된 ‘교육기본법’은 종전까지 사용되던 ‘교육권’이라는 용어를 ‘학습권’

으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즉, 종래의 교육법은 교육의 주체를 교육자로 보았기에 교육권을 강조한다면,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주체를 피교육자로 보고 ‘학습할 권리’인 학습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교육 패러다임이 1998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교육공여자식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학교를 포함한 한국 대학은, 적어도 장애학생의 학습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적극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영재 및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손승현 교수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설 부문에서는 거의 최우수 등급을 받거나 좋은 등급을 받지만, 교수학습 영역의 평가점수는 여전히 시설 여건에 비해 열악한 주제”라고 지적한다.

먼저 ‘교수자와 장애학생간의 관계’에서 지

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이 수강할 과목의 교수자에게 사전에 미리 장애학생 배려를 위한 학습 가이드북과 장애학생 지원 사례집이 첨부된 메일을 발송한다. 교수자들이 장애학생이 비장애인들과 좀 더 등등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권고하려는 차원에 서다. 그러나 일부 장애학생들은 이 점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정 장애와 상황에 맞는 탄력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각장애 3급인 서울캠퍼스의 D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교수님께서 가이드북에 나온 지침들을 수업에 반영하지 않으셔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육성은 들리지만 마이크나 기계소리 같은 경우는 소리가 번져 잘 들리지 않는

데도, 교수님께서 자꾸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수업 내용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찾아가서 내 상황을 직접 말씀드리기도 꺼림칙해서, 상당히 난감했죠.”

시각장애 4급인 서울캠퍼스의 E 학생은 “앞자리에 앉아야 그나마 보이는데 지정좌석제를 하는 교수님이 나를 뒷자리에 배정해주세요”며 아쉬움을 드러낸다. 한 학기동안 보이지 않는 판서를 보기 위해 많이 고생했다는 것이다.

“자율좌석제를 통해 학생들이 앞자리부터 앉아서 자리가 없는 것이라 모르겠지만, 지정좌석제임에도 불구하고 뒷자리로 배정해주시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수자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는 이런 목소리들과는 반대로, 교수자의 관심이 부답스러워 최소한의 조치만 취해주면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시각장애 5급인 서울캠퍼스의 F 학생은 “조별과제에서 조를 짤 때 나만 개인과제로 돌려주셨다”며 “시력이 조금 나쁠 뿐, 비장애인 학생처럼 조별과제를 수행하고 싶었는데 상의 도 없이 그렇게 하셔서 당황스러웠다”라고 말한다. “배려인 건 알겠지만 내가 요청하는 선에서만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마다 각자가 원하는 관계형성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대하는 명확한 ‘매뉴얼’이란 존재하기 힘들다.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과거의 공여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환경에서는 교육자의 시선에 맞게 획일화 된 가이드를 배포하는 것이 대처방식일 수 있었지만, 피교육자가 능동적으로 학습권을 추구하는 오늘날에는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가이드북 배포 같은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각각의 장애학생의 요청사항을 들어보고 반영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비장애인과 장애학생 사이의 문제’도 이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장애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이해가 비장애인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장애인은 과도한 관심을 보이거나 오히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장애학생들이 예기치 못한 상처를 받기도 한다. 시민교육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진진주 직원은 “시민교육 때문에 학기마다 연락이 10번씩은 오는 것 같다”며 “학생들이 종종 장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 연락이라고 한다.

처를 얻으려 오는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관심을 가지고 과제가 끝나면 관심을 거두면 장애 학생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교수자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강의를 하거나 동영상을 만들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정도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교수자 개인마다 인식 수준이나 태도의 차이가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인 매뉴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교수자에 대한 교육’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곳은 서강대학교다. 서강대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장애학생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용 자료를 교수용, 비장애인용, 그리고 장애학생용으로 나누어 편집할 수 있게 올려놓았다. 또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인 학생들이 함께 하는 세미나를 시행해 서로간의 자연스러운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구성원 모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이 마주하게 될 사람들의 인식 전반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출판문화원 오디오북 제작 계획

후마, 인가탐·우사세 대상

우리학교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 아래 장애학생의 학습권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사례로는 출판문화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출판문화원에서는 후마 니타스칼리지 공동 교재인 〈인간의 가치탐색〉(인가탐)과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를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 오디오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오디오 북은 전문 성우가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더 명확히 전달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는 몇몇 시각장애학생들의 요청으로 인해 시작된 작업이다. 학생의 요청 이후로 저자와의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을 기획해 전문 성우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장애학생들을 일률적으로 라벨링해서 매뉴얼화 된 대처에 나서는 것 보다는 학생 스스로의 요구에 따라 적극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이뤄지는 것이 ‘학습자 중심 교육’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출판문화원의 이런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교재들은 이르면 2016년 봄쯤 인가탐 교재의 개정이 완료되고 나면, 여러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작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분	학과	전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인천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 장학제도

구분	장학금	지급기준
공무원장학	수업료 2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공공기관장학	수업료 2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외국인장학	수업료 30%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평생교육장학	수업료 20%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출입여정자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총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야간) 및 주말 개설

● 특별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5. 10. 19.(월) ~ 11. 6.(금)
- 전형일 : 2015. 11. 7.(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nu.ac.kr)

● 특별전형 - 전형료 없음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학부) 출입(예정증명서) 1부

● 문의처

- 전화 : 02-961-0905 홈페이지 : interlaw.knu.ac.kr

평화복지대학원 전액장학 신입생 모집(주간)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전원 장학금(학비, 숙식비, 교재비) 전액 지급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모집과정 : 석사과정 (전액장학)

● 모집전공 : 국제평화 / 아태지역 / 대안정치거버넌스

● 전형방법 : 논술 및 면접

● 원서접수기간 : 2015년 11월 9일(월) ~ 11월 18일(수)

● 입시 일정

일자	전형 내용
11월 18일(수)(우편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인정)	서류마감
11월 25일(수)	필기시험
11월 30일(월)	1차 면접
12월 2일(수)	2차 면접
12월 11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gip.kn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E-mail: gip@knu.ac.kr 문의전화: 031-570-7012~6

2015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업만족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시평가는 평가문항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평가사항을 평가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시 강의평가는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청과용으로만 활용됨.

● 수시 강의평가는 진행기간 : 2015. 10. 05.(월) 10:00 ~ 11. 27.(금) 17:00 (8주)

●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 강의평가 → 수강과목확인 후 강의평가(수시) 선택

● 평가면밀화 설명

- 가. 1번 '강의내역' : 선택한 강좌내역을 확인
- 나. 2번 '평가문항' :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저장'을 클릭
- 다. 3번 '평가내역확인' : 본인이 일자별로 올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 가능

● 평가내역 수정

-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디딤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함
- 나. 평가화면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클릭
- 다. 디딤창이 뜨면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
- 라. 수정완료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청탁기를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 참조 및 유의사항

- 가. 수시평가자는 강좌당 주 2회까지(총 16회) 의견제기 가능합니다.
- 나. 본 수시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과